

잡언 1:7-33

5) 1:20-33

- 첫 번째 지혜의 시
-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경고

①이 본문은 여성으로 인격화된 지혜가 분주한 거리와 광장에서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일 것을 권면

-지혜는 연설하는 인간(격)으로 등장

a.지혜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이 찾아와서 지혜를 찾는다고 해도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의 하소연을 들은 체도 하지 않음

잡언 1:7-33

b.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비웃음을 행한다(26절)

- 미련한 자는 **어려운** 방법으로 지혜를 배운다는 것
- 즉 불행을 통해 고통을 겪은 후에야 **지혜의 가치**를 알게 됨
- but 때는 늦었고 지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됨(28절)

c.세익스피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스스로 청한 고난이 그들의 선생이 된다.**”

-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33절)

잡언 1:7-33

②이 본문은 지혜의 첫 번째 연설

- 지혜의 두 번째 연설은 8장에 등장
- 서로 동일한 구조 소유

<차이점>

a.8장의 연설: 친절, 따뜻한 지혜의 모습을 찬양
(긍정을 통한 지혜의 강조)

b.1장의 연설: 냉정, 무정, 엄격한 지혜의 모습을 서술
(부정을 통한 지혜의 강조)

잡언 1:7-33

<1장 본문에서의 지혜>

1) 조언을 거절한 人間을 멀리하고 그들의 도움을 거절

2) 마치 예언자들의 선포와 같이 지혜의 태도는 엄격

⇒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백성들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야웨에게 부르짖어도 야웨는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태도

⇒ 본문의 지혜설교는 예언자 선포의 어조를 띠고 있으며
예언적인 설교의 형식을 취함

지혜의 조언을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다

잡언 1:7-33

6) 본문 주석

<20~21절>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서론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혜의 공적인 성격을 강조

→ 지혜의 활동은 조그마한 집단, 장소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곳과 관련된다는 것임

잡언 1:7-33

<강조점>

-지혜는 개인, 개인의 운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운명, 사회, 집단의 운명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음을 강조

-"지혜의 공공성"을 말한다.

-그래서 20절의 지혜는 tAmk>x' (여성복수형)을 사용

참조)9:1; 24:7; 시 49:4

잡언 1:7-33

<지혜의 공적인 기능>이 강조되기 위해 5곳의 장소가 제시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의 공적인 장소**

(1)길거리

(2)광장: 느 8:1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으며,
말씀(율법)을 듣는 장소

(3)길머리(모퉁이)

(4)성문어귀(입구): 전통적으로 재판, 고소 등이 진행된 장소
(욥 29:7; 룻 4:14)→ 고대근동 도시들의 군집장소

(5)성안

-5장소는 시골이 아니라 **규모가 큰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

{ **예루살렘** - 여러 개의 길 소유(렘 5:1)
브엘세바 - 12m높이의 성문이 20여 개가 있음

예루살렘 뚝문

2007/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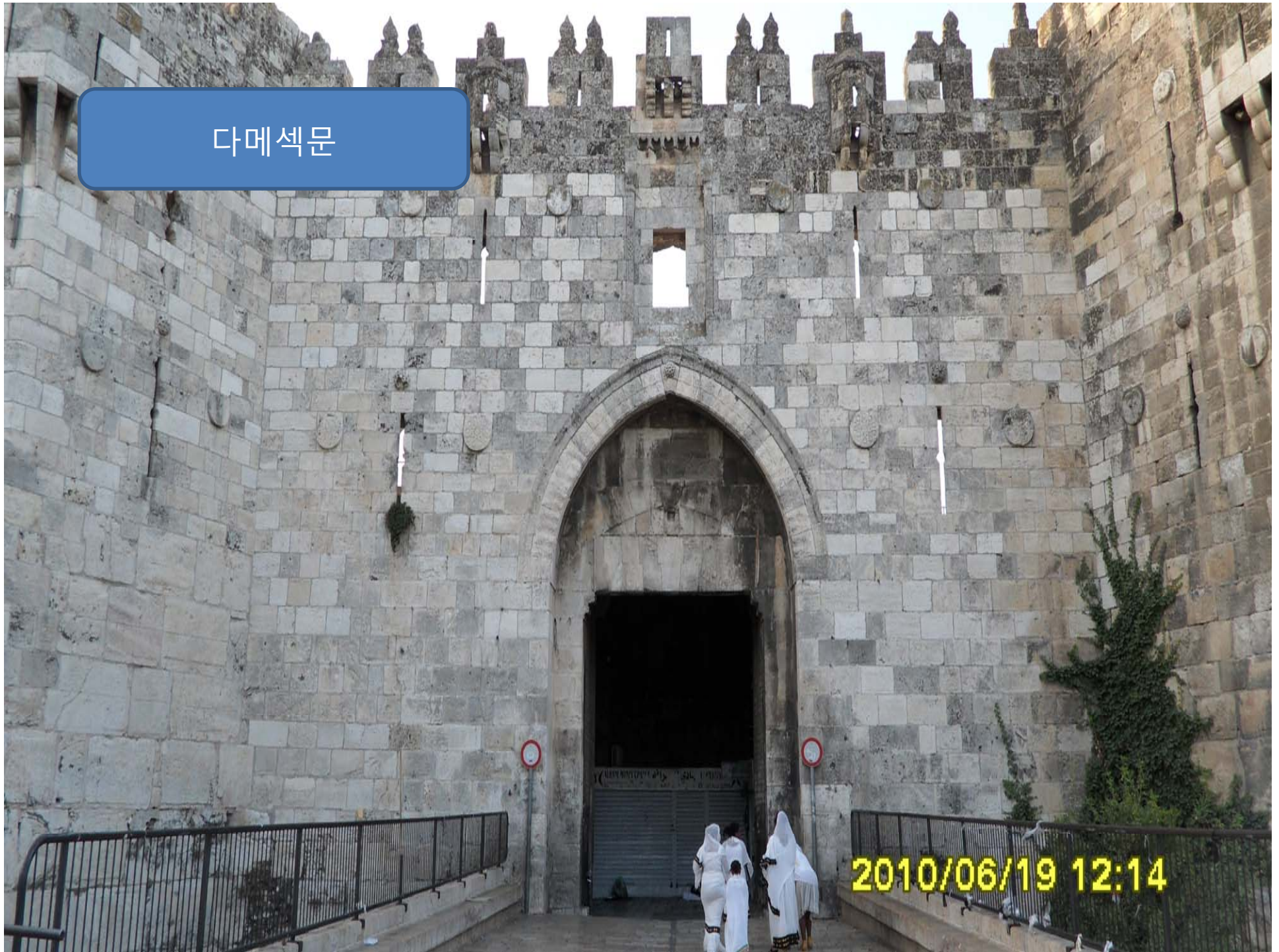






다메섹문

2010/06/19 12:14





2010/06/19 12:20

통곡의 벽 광장



므깃도

THE CITY-GATE (THE IRON II PERIOD)

שַׁעַר הָעִיר (תְּקוּפַת הַבְּרָזֶל הַיָּסוּד)

במאה ה-10 או ה-9 לפס
מגידו לעיר ישראלית, והי
המנהלי של עמק יזרעאל.
מכן, הוקמו בה חומה חדש
מונומנטלי (2-4). על פי ה
יש לייחס את השער לימי
ה-10 לפסה"נ. על פי דע
לתארכו לימי אחאב, ב
לימי ירבעם השני, במאה

became an Israelite city
between the 10th and 9th
, and functioned as an
e center for the fertile
y. Some time later, a
(1) and a monumental
were built. According
, the gate dates to the
omon (10th c. B.C.).
postdate the gate to
either Ahab (9th c.)
m II (8th c. B.C.).



(1) insets-offsets wall
(2) outer gatehouse
(3) inner courtyard
(4) inner six-chambered gatehouse

בתקופה האשורית (732-630 לפסה"נ לערך)
הוחלף השער הפנימי בשער בעל שני תאים.
שארותיו ניתן להבחין מעל השער הקדום.
In the Assyrian period (732-ca 630 B.C.), the inner
gatehouse was replaced by a two-chambered gate, whose
remains can be seen on top of the older gatehouse

במסגרת חשיפתו על ידי
קצו. חלקו המערבי
לך החפירות.
The inner gate at
University of Chic
before the removal



2007/02/01



하슬

שער העיר חצור
מימי שלמה המלך
(מאה 10 לפסה"נ)

THE HAZOR CITY GATE
KING SOLOMON PERIOD
(10th Century B.C.E.)



2007/02/02



תל דן
TEL D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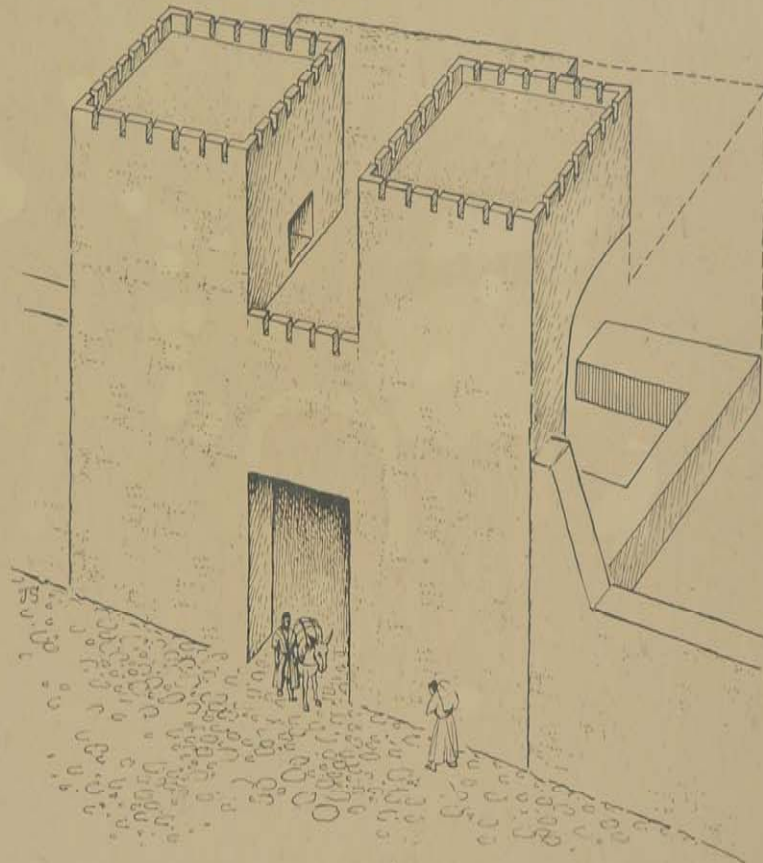
2007/02/02





The Gate

The gate was constructed with two rooms flanking the passageway. Benches were discovered along the walls of one of the rooms. All the city's streets intersected at the gate, which served in the defense of the city and as a meeting place and the seat of the judges.



Reconstruction of the gate

שיחזור השער

השער

לשער שני חדרים מכל
צד של המעבר. באחד
מחדרי השער התגלו
ספסלים לאורך הקירות.
כל רחובות העיר נפגשים
ברחבת השער, שנועד
להגנה, להתכנסות
ולמקומם של השופטים.



2010/06/21 15:51



라기스



Eben chaya

Lachish on the eve of the Assyrian siege by Sennacherib(BC701)

2010/06/20 23:04



텔아라드

2010/06/21 14:10

잡언 1:7-33

<21절>

-시끄러운(원화하는)

➡ hm'h' :시끌시끌하다, 떠들다, 소란하다”(왕상 1:41; 사 22:2)

-시끄러운 길목: 소란한 무리들이 모인 시끄러운 장소

잡언 1:7-33

<22~23절>

- 22)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a. 지혜의 질책의 말

-언제까지(yt;m'-d[;)]라는 의문사로 시작

→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문장 처음**에 위치(왕상 18:21)하며, **직접화법을 이끈다.**

잡언 1:7-33

b. **질책의 대상**은 22절에서 세 부류가 소개

- (1) **어리석은 자**(~yIt'P.) - 경험 없는 단순한 사람
- (2) **거만한 자**(~ycile) - 조롱꾼, 수다쟁이
- (3) **미련한 자**(~yliysik.) -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

-잡언에 등장하는 '**바보**'를 의미하는 다른 단어

→ **나발**(lb'n' 17:7,21; 30:22) - 더 멍청한 바보

c. "**지식을 미워하다**"

- 지식(t[:d:])는 여기서 **종교적 규례, 하나님의 법**을 의미
- 호세아서에서는 **모세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

잡언 1:7-33

<23절>

a.예언자적인 단어의 등장

1)돌이키다(bWv)

-희망적인 선언, 예언자들의 선포의 핵심단어(H.W.Wolff)

2)나의 영(yxiWr)

-대사사, 9+7세기 예언자들의 활동의 원천(사 44:3)

b.본문의 강조점

- '돌이킴'과 '영'의 결합을 시도

- '지혜'와 '야웨종교'의 결합이 시도

잡언 1:7-33

<24~27절>

24)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27)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a. 지혜가 내뱉는 일종의 **위협**의 말

- 마치 예언자들의 위협의 선포와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처럼 들린다.

잡언 1:7-33

b.23절과 24절의 연결은 **부자연스러움**

-왜냐하면 23절은 **희망의 선언**이었는데, 24절에서 곧바로 **위협의 선언**이 등장하기 때문

-즉, 20-23절의 **친절한 지혜**의 부름에서 갑자기 **저주의 선언**으로 전환

-학자들은 두 절 사이의 단절(시간적인 경과)을 전제



지혜의 노력(활동)은 예언자들의 선포의 활동처럼 **허무함, 절망**

c.“**손을 폈으나(24절)**” - 사람들을 초청하려는 태도, 모습

d.“**멀시하다(25절)**” -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

잡언 1:7-33

e.26-27절의 교차배열법: 지혜를 무시한 사람들의 재앙, 불행을 강조

26절

너희의 재앙 - 내가 웃음

내가 비웃음 - 너희의 두려움

27절

임함 (광풍같이) - 너희의 두려움

너희의 재앙(폭풍같이) - 이르고

잡언 1:7-33

f. "광풍같이 + 폭풍같이" (27절) → 두 가지 차원을 강조

- 1) 재앙의 갑작스러움
- 2) 재앙의 심도가 강함

⇒ 27절은 점층법이 아니라 **평행법**

:광풍, 폭풍이 가져온 재난은 동일

g. "근심과 슬픔" (27절) - 언어유희

-hq'Wcw> hr'c' (동일음 반복을 통해 청중의 귀에 각인)

잡언 1:7-33

<28~31절>

28)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29)대저 너
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31)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a.결어부분으로 넘어가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음

28절: 구원의 기회는 지나갔고, 지혜는 매정하게 사람들을 무시할 것임
29-30절: 지혜가 매정하게 변화된 이유: "야웨 경외"를 하지 않음
31절: 지혜의 인과응보

잡언 1:7-33

b.“그때에(28절)”

-28절 처음에 등장하는데 깨달음이 **너무 늦었음**을 말하고 있는 부사

-28절: **예언자의 선포**를 생각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굳은 결심**을 나타냄

→<너무 늦은 돌이킴은 효과가 없다>

사 1:15; 59:2; 렘 11:11; 미 3:4

“너희의 돌이킴을 듣지 아니하겠다”

잡언 1:7-33

c.29-30절의 4개의 동사의 의미

1)미워하다(an'f')

2)즐거워하지 않다(rx:b' aOl)

3)받지 않다(hb'a' aOl)

4)업신여기다(#a]n')

⇒ 동일한 의미로 사용

- 이 단어들의 반복의 의미: 인간이 행동, 결정의 주체

→ 지혜, 교훈, 말씀, 책망을 받지 않은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즉 인간의 불행의 이유, 원인은 인간의 행동, 생각에 달려있다
(인과응보의 법칙)

→ 인간이 선택의 결정권을 소유하고 있다.

☞ 지혜(하나님 경외, 믿음)는 인간에게 올바른 결정, 적시의 결정을 하도록 도와줌

잡언 1:7-33

<32~33절>

32)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33)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a. 결론부분

- 지혜로운 자만 재앙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 but 어리석은 자 + 미련한 자는 스스로가 만든 운명의 함정에 빠지게 됨

잡언 1:7-33

b. 어리석은 자의 퇴보와 미련한 자의 안일(32절)

(1) 퇴보(hb'Wvm).)

-지혜와 교훈을 외면하고 떠나감

-구약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사용됨

(2) 안일(hw'l.v;)

-경솔한 안정, 편함 ⇒ 거짓된 안정

잠언 1:7-33

<총 결론>

a. 잠언이 말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

- 현자들은 **죽음**을 **현실적인 문제**로 간주한다. 그러나 잠언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 탄식하지 않는다.**
- “누구나 죽는다”는 우주적 명제에 한숨을 쉬지 않는다.
- **무덤 이후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며, **현재적 축복**(건강, 많은 친구, 장수, 多자녀, 넉넉한 재산)이 중요

b. 고대인들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음

- (1) **축복받은 人生**: 편안한 죽음, 수명이 다 된 죽음
- (2) **축복받지 못한 人生**: 요절, 사고사, 객사, 자살, 재난사